

‘폐교를 희망 터전으로’… 경북교육청, 지역 가치창출 이끌어

지자체·주민·외부기관 협력 강화
장기 미활용 폐교 활용방안 모색
임종식 교육감 “교육·지역 함께 상생”

경북교육청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외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 매각이나 대부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활용된 폐교는 일반 입찰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불리해 어려움이 크지만,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 대부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교 활용의 우수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2007년 문을 닫은 김천 어모초등학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바뀌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울릉중 태하분교장 자리에 조성된 수토역사전시관.

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동장에는 ‘나눔의 숲’이 조성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 됐다.

1995년 폐교된 안동 화남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농업기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기계 실습과 야생동물 퇴치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폐교된 영천 자천중학교는 ‘보현산 녹색체험터’로 재탄생했다. 본관은 도서관과 카페, 놀이 공간으

로 꾸며졌고, 야외에는 짚라인과 녹지공간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체험관과 디지털 추억교실이 운영되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 폐교된 칠곡 기산중학교는 ‘기산아트타운’으로 변모해 전통문화예술 체험의 중심지가 됐다. 금속공예, 목공예, 두부·떡 만들기 등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문을 닫은 울릉중학교 태하분교장은 울릉군이 매입해 2017년 ‘수토역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조선시대 울릉도 관리 제도였던 수토제를 주제로 한 전시관은 실물 크기 수토선과 체험형 전시물을 갖추고 있어 울릉도의 개척과 수호 역사를 생생히 보여준다. 현재는 학생들의 역사 체험학습장과 주민들의 자긍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폐교 재산 매각과 대부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버려진 공간이 희망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 재생과 미래 세대 교육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북도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1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도의원, 허명한 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 지도자와 다문화 여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다짐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전남도, 20일 ‘전남GT’ 개막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2025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GT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종목과 함께 하는 스피드 축제다.

2시간 내구레이스인 ‘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차량인 ‘스포츠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전남도는 원슈타인·마이트마우스의 축하공연, 가상레이싱, 카트체험, 미니카경주, 버블쇼 등 레이싱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안(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창원시

임시주거시설 289개소 확보

창원특례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 증가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을 43곳 늘린 289개소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극한 호우 등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원활한 대피와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46개소에서 43곳이 추가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재해구호물자 424개를 자체 제작·비축했으며 앞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구호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완도해양치유센터, 10만명 치유

완도해양치유센터 누적 치유객 수가 지난 주말 기준 10만 명을 달성했다.

10만 번째 치유객은 광주광역시에서 친구와 함께 센터를 찾은 김아로 님으로 전복 세트와 센터 초대권이 경품으로 전달됐다.

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치유객 10만 명 달성 기념 환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10만 보 맨발 걷기 챌린지, 해양치유 건강 릴레이, 10만 축하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등을 30일까지 진행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9h750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놀러오세요”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 운용사 선정

포항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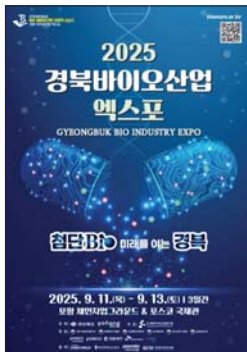
‘첨단 Bio, 미래를 여는 경북’ 주제

포항시는 ‘202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를 오는 1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Bio, 미래를 여는 경북’을 주제로 사흘간 주제별 컨퍼런스, 박람회, 기업 투자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또 세계적 재생의료 권위자인 제임스 유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연구소 부소장이 ‘재생의학 제품의 생산 및 전달체계 확립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컨퍼런스는 포스텍,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포항테



크노파크 등이 주관해 ▲바이오·약 ▲푸드테크 ▲헬프 ▲그린바이오 등 4개 분과별로 개최된다.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람회장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제관을 비롯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시관이 마련되며 최신 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소개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비즈 DNA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행사도 준비돼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포항(경북)=김진관 기자 jingon@

원익투자파트너스 등 3곳 확정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산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의 자펀드 운용사로 원익투자파트너스, 아주아이비(IB)투자, 노애파트너스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모펀드 551억원이 결성된 데 이어 이번 자펀드 선정 공모에는 총 6개 펀드 운용사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 속에 3곳이 확정됐다.

이번 선정 결과는 ‘블라인드 펀드’(사전에 특정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되는 펀드)에 대한 것이며, ‘프로젝트 펀드’(특정 투자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성되는 펀드)는 별도의 수시 절차를 통해 추가 결성될 예정이다.

영덕 국가지질공원 ‘9월 생태관광지’ 선정

영덕군 체험 프로그램 강화 계획

영덕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가 선정한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생태와 지질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덕 국가지질공원은 2023년 11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고래불해안과 철암산 화석 산지, 죽도산, 경정리 해안, 해맞이공원 등 총 11개 지질 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체험 콘텐츠를 확장해 왔다.

영덕군은 고래불해안, 영해 메타세콰이아 숲 등 기존 관광지와 지질 명소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보안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영덕 지질명소 중 하나인 죽도산 모습

높이고, 블루로드의 관광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선정은 영덕의 지질 자원과 생태관광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자연유산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릉군, 섬 지역 법·제도 개선 건의

국회 방문… 특별자치군 입법 등 요청

울릉군은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를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 행보의 일환이다.

세 지자체는 ▲국토외곽면적 지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사업 확대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이상취·서삼석·문

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통합 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개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도(경북)=박병률 기자 pbr34@